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기고] 감귤 전정가지 소각 말고 파쇄하세요-14면(김승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새콤새콤’ 20억원 규모 풋귤시장 열린다-6면	-	제주매일
○	올해 제주 감귤 4500t 수출... 공동물류 사업도 추진-9면	-	제주매일
○	김애숙 청문보고서 ‘채택’ 제주 첫 여성 정무부지사-2면	-	뉴제주일보

(제주일보: 2024년 3월 29일)

○ [기고] 감굴 전정가지 소각 말고 파쇄하세요-14면

감굴 전정가지 소각 말고 파쇄하세요



나의 의견

김 승 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화팀장

봄철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67건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특히 3월에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25%에 달하는 14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원인에는 입산자 실화 29%, 소각 22%, 담뱃불 9% 순이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농지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진 사례가 많았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감굴원 간벌 및 전정 시기인 2~5월에 전정가

지가 가장 많이 발생해 이 시기에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및 농경지 화재가 매우 염려스럽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서귀포시연합회와 협업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파쇄작업단이 농가에 찾아가 전정가지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작업단 발대식을 개최해 발대식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는 회원 결의대회를 가진 후 파쇄기 안전 사용 교육도 이루어졌다. 파쇄작업단은 파쇄 서비스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농가 인식 개선에 나서고 청정제주 만들기 홍보대사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은 땅으로 되돌려 보내면 거름이 되지만 불태우면 화재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소각하지 말고 파쇄하세요.

3.29.
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29일)

○ ‘새콤새콤’ 20억원 규모 풋굴시장 열린다-6면

‘새콤새콤’ 20억원 규모 풋굴시장 열린다

도, 내달 8일부터 출하농장 지정 신청...2억3000만원 지원

‘상콤미’로 감귤과 또다른 매력으로 고소득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풋굴이 올해 출하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5월 3일부터 2024년산 풋굴 출하농장 신청을 받는다.

풋굴은 덜익은 감귤로 황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 3.29조에 따라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제주매일 6기능 등 효능을 인정받으며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풋굴 판매수익은 2021년 499농가·24억원, 2022년 386농가·23억원, 지난해 406농가·21억원이다.

도는 올해도 풋굴출하농장에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과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1개 당 640원의 전용 상자 구입비, 한 건당 2000원의 택배 운송비 등 총 2억 3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애리 기자

(제주매일: 2024년 3월 29일)

○ 올해 제주 감귤 4500t 수출... 공동물류 사업도 추진-9면

올해 제주 감귤 4500t 수출...공동물류 사업도 추진

한국감귤수출연합 정기총회...제주농협과 사업계획 의결

한국감귤수출연합은 27일 농협 제주본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주농협(본부장 윤재춘)과 함께 2024년 제주 감귤 4500t 수출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인 3920t(30만7357달러)보다 580t 증가한 물량이다. 더불어 대표이사로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수출전문 생산단지 확대 등 전문적인 수출 감귤 생산 농가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감귤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3년 말로 종료된 수출 3.29. 농산물 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응해 제주매일 9아레트, 신선유지제 등 수출

관련 각종 기자재를 수출 농협 등에 지원하고 공동물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력해 올해 국제감귤박람회와 국제감귤학술대회 기간에 해외 주요 바이어를 초청하고 대만, 홍콩 등에서 개최되는 수출 박람회에 참여해 세계 각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주 감귤 홍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귤 수출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지역 수출 확대와 함께 EU지역 시장조사를 통한 시범 수출 및 뉴질랜드 수출 확대 등 러시아에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

박경철 기자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9일)

○ 김애숙 청문보고서 ‘채택’ 제주 첫 여성 정무부지사-2면

김애숙 청문보고서 ‘채택’

제주 첫 여성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 부합 놓고 道-의회 ‘공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가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회와 도정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은 1호 ‘2급 이상 3년 재직’, 2호 ‘3급 이상 6년 재직’, 3호 ‘선출 시장·군수 4년 이상 재직’, 4호 ‘대학 부교수 이상 8년 재직’, 5호 ‘환경·지방행정·1차산업 등 학식·경륜을 가진 사람’ 등 5가지”라며 “제주도가 5호 기준을 따랐는데 김 후보자는 현재 공직자로서 1~4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해석에 따라 인사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5호를 적용한 건 맞다”면서도 “사전에 3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 32년 농수축산 현장 경험 등 1차 산업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는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다”면서도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 유관 기관·단체 등

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무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화합 및 혁신에 기여하고, 1차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비전과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년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며 얻은 경험으로 정무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행정 경험과 업무역량, 대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전반적인 정무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사상 첫 여성 정무부지사 후보자인 김 후보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이사관(2급)까지 오른 40여 년 경력의 공직자다. 이 사관 승진 및 도의회 사무처장 임명 역시 제주도 여성 공직자 중 최초였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